

제일모직, 섬유역학 공인시험기관 인정

제일모직 구미사업장이 모방업계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제일모직은 최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섬유 역학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12월2일 발표했다.

한국인정기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험기관 인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구로,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종합 평가해 국제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구미사업장은 실험이나 시험 등을 통해 얻은 결과값에 국제공인 인정마크가 부착되고,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선진 45개국 57개 시험기관 인정기구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일모직은 내부적으로 제품의 품질 안정성이 높아지고, 품질서비스 신뢰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12/02>